

지리적 접근성 용이 · 친환경적 자연환경... '여기가 최적'



축구종합센터 조감도

장수군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 후보지 공모에서 1차 심사에서 통과한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유치를 위한 활동이 뜨겁다. 축구 동호회는 축구센터 유치를 염원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했고 군민들은 서명운동에 나섰다. 군의회는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 건의안'을 채택·의결해 힘을 실었다. 이밖에도 장수군체육회, 장수군 이장 등도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를 기원하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렴한 매입비, 빠른 부지확보

장수군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 것은 사업의 용이성이다. 제안 부지 총 42만 7,823㎡ 중 40%가 군유지이며 나머지 사유지는 업무협약을 마쳐 즉시 부지확보가 가능하다. 대한축구협회가 부담해야 할 매입비가 4억여 원 수준으로 수도권 등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다.



▲폭염NOI, 열대야NOI, 해발 500m고지대로 훈련효과 극대화

장수군은 선수들의 훈련 여건에 맞는 최적의 고지대 청정 환경을 갖추고 있다.

폭염과 열대야가 없는 해발 500m 이상 고지대에 위치해 훈련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며 전국 미세먼지 기준대비 33% 수준의 지역(여여코리아 자료)으로 천혜의 자연환경 여건을 갖추고 있다.

▲승마부터 온천까지, 상호보완 훈련부터 휴식까지 모두 한 곳에서

대한민국종합축구센터 장수군 부지 대상지 주변은 인프라와 연계해 상호보완 등 발전가능성 크다. 사업부지 인근에 나불리조트와 10km 승마로드, 외룡휴양림, 승마체험장 등이 위치해 산악 체력훈련이 가능하다. 또 조성 중에 있는 그린장수 치유의 숲과 성분이 우수한 나불리조트의 푸른물 온천욕 등 훈련 후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 등에도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현 정부의 핵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실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명분과 당위성도 확보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균단위

제안 부지 중 40%가 군 유지
나머지 사유지는 즉시 확보 가능
여름철 폭염 · 열대야가 없어
선수들 전지훈련에 안성맞춤
센터 유치시 브랜드 가치 상승
지역민들 유치기원 서명 등 나서

오히려 수도권에 비해 접근성이 우수하다. 실제 전주, 광주, 대전, 대구 지역 월드컵 경기장까지의 이동 시간이 1시간대여서 축구센터 위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수도권 지역보다 더 넓게 미칠 수 있다.

▲장수군민 '염원', 1만명 유치기원 서명 · 유치결의대회

장수군민과 향우회, 축구동호회, 유관기관 및 단체들은 축구종합센터 장수군 유치를 위해 1만 명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는 12일 오후 3시 장수 한누리전당 산더관에서는 1000여명의 주민과 축구인, 출향인사 및 군 관계자 등이 모여 유치 결의대회를 펼친다.

결의대회는 식전공연과 결의문낭독, 결의 퍼포먼스, 친선 축구 경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의 뜨거운 염원은 단순 유치가 아니다. 최근까지 무진장으로 불리며 교통오지, 인구 소멸 지역 등 위기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동아줄과



같은 것. 이들은 축구센터의 유치로 지역 브랜드 가치가 동반 성장할 것이며 향후 10년간 매년 1000억원, 810명의 취업효과가 예상되면서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민 염원 실현,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은 장수에서 시작돼야 한다!

군민들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청정 장수군에 유치돼야 한다.

나아가 축구센터 장수군 유치는 국토 면적 전체의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 50%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어 있는 불균형을 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의 실현시키는 첫 희망이 될 것.

현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영수 군수는 대한민국 축구센터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치고 있다.

지난 달 18일 장 군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송재호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대한민국축구센터의 장수군 유치 정당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적극 건의했다.

특히 장 군수는 대한민국축구센터건립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낙후된 지역에 유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